‘광주 학살자’ 손자 사죄 행보…용서 진정성 담기나

노재헌씨와 상반된 모습 기대
전씨 일가 비자금 실체규명 주목
5·18 단체 “참배 긍정적” 입장

5·18 유혈 진압의 책임자이자 신군부 수괴인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용서와 사죄를 구하기로 하면서 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2·12 군사 쿠데타 동지관계인 고 노태우씨의 아들 노재헌씨는 이미 여러차례 5·18 묘역을 방문해 아버지 대신 사죄를 구했으나 진상규명 작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전우원씨 역시 5·18 유족, 생존 피해자 만남에 이어 묘역 참배에서 아픈 역사로 기록된 오월의 참상을 올곧게 이해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할지 주목된다.

30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전우원씨는 31일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만나 면담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전우원씨가 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사죄한다면 광주 학살의 주범인 고 전두환씨 일가 중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고 노태우 씨의 경우에는 아들 노재헌 씨가 지난 2019년 8월과 12월, 2021년 4월과 5월, 12월 등 꾸준히 광주를 찾아 아버지 대신 사과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시 재헌씨는 “(아버지가) 40년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못하신 것은 다른 분이라도 받아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친의 회고록 개정에 대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참배의 진정성과 5·18 진상규명 의지가 결여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전우원씨의 경우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실체를 밝혀낼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등 노재헌씨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전우원씨는 이날 오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걸어주신 모든 시민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방송에 나오다보니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응원을 해주셨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기적인 마음, 무서운 마음에 과거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저희 가족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위주로 봤다”며 “이번에는 조금 더 피해자 분들의 입장에 서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위주로 보다 공부하며 내일 일정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5·18 단체는 전우원씨의 이번 사죄 행보에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은 “노재헌씨는 3단체와 협의해 공식적인 일정을 가진 것이 아닌 일부 회원을 통해 광주를 방문했는데, 전씨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식적으로 나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밝힌 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전두환 가족 중 최초이기 때문에 전씨의 사죄가 특전사 등 당시 관련인들의 심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장은 “노재헌씨는 수 년 전부터 광주를 찾아 참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조용히 방문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반면 전씨는 SNS 등 여론을 적극 활용하며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을 제대로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반향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진상규명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찬기 기자

5·18기념문화재단, 5·18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30일 오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광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광주 나서달라”

유가족들, 동참 호소 기자회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순회에 나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광주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진실버스 전국 순회 나흘차를 맞은 30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추모사업,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서는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참사는 일어났는데 원인 규명도 책임도 희생자들의 상흔도 재발 방지 대책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며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완전히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5·18 광주시민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며 “이러한 광주·전남 시도민이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에는 광주지역 종단, 시민사회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하고, 저녁에는 옛 전남도청 회화나무 숲에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다짐과 연대의 마당 행사를 펼친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10일간 진실버스 전국 순회에 나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31일 창원, 4월 1일 부산 등 나머지 일정을 소화한다.

/김혜린 기자

5·18재단, 5월 행사·연간사업 내달 5일 발표

5·18기념재단은 다음달 5일 5·18기념문화센터 내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월 행사 및 연간 주요 사업’ 안내를 포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 CI와 개편된 부서, 이에 맞춰 진행된 사무처 환경 조성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올해 시범 운영하는 5·18국제연구원의 운영 기본 계획과 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진행되는 30여개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자료를 배포한다. 배포자료에는 사업별 내용, 행사 일시 및 장소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간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겠다”며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기념재단 지난 1월 9일 기존 4개 부서(행정지원실, 국제연대부, 교육문화부, 연구소)를 7개 부서(행정지원실, 기획홍보실, 5·18글로컬센터, 오월학교, 오월길문화사업단, 기록진실부, 5·18국제연구원)로 개편했다.

/민찬기 기자

남부서, 월산동 모텔 화재 원인 조사 착수

배수 작업후 합동 감식

남부경찰서는 월산동 모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불이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의 한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소방용수 상당량이 지하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감식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수 작업을 마치는 대로 합동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고의가 아닌 본인의 실수 또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라고 하더라도 업주에게 실화 혐의 등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월산동 모텔 건물 화재는 전날 오후 6시 49분께 발생했다.

당시 이 건물에는 투숙객 등 17명이 머물고 있었는데 10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 /민찬기 기자